

해즐베이커, 호랑이 밥상은 내가 차린다



해즐베이커



여기는 오키나와 **한경국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을 가다**

뛰어난 선구안·빠른 발 장점... 도루왕 정조준
경험 풍부... 외야수 리드오프서 뛸 가능성 유력
KIA 오기 전 타격폼 수정...실전에 통할지 관심

“어느 포지션이든 상관없이 뛸 수 있어요. 오직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해즐베이커는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게 된 새 외국인타자다. 1987년생인 그는 2009년 4라운드 전체 138순위 로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해 오랜 기간 마이너리그 생활을 경험한 선수다.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해 그해 114경기 출전 타율0.235 47안타 12홈런 28타점 5도루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옮긴 뒤 그해 메이저리그에서 41경기 출전 타율0.346 18안타 2홈런 10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탬파베이 레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를 거쳐 마이너리그에서만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다. 해즐베이커의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915경기 동안 타율0.260 854안타 99홈런 431타점 267도루다.

올해부터 KIA의 유니폼을 입게 된 해즐베이커는 수비 때는 외야수, 공격 때는 리드오프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즐베이커는 “KIA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료들도 굉장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이 우승이라는 똑같은 목표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 국내 무대에서도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리그에서 우익수는 63경기, 중견수는 27경기, 좌익수는 14경기를 뛴 만큼 다양한 외야 포지션에서 뛰었고, 또 타석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타석을 소화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 활약했던 로저 버나디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즐베이커는 “현재는 144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

다”며 “앞으로 밸런스를 잡아갈 계획이다. 수비는 충분히 반복 훈련해서 안정적으로 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즐베이커의 장점은 뛰어난 선구안과 빠른 발이다. 일단 1루와 2루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1루 출루에 성공한다면 그는 주저 없이 도루에 도전할 정도로 발이 빠르다. 해즐베이커는 “자신 있는 능력은 도루다. 앞으로 도루 시도를 많이 할 계획이다. 2루 도루뿐만 아니라 2루에서 홈으로 파고드는 빠른 주루도 보여 주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체적인 목표가 숫자로 계획된 상태는 아니다. 매 경기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고 다짐했다. 해즐베이커는 열정 또한 뛰어나다. KIA에 입단하기 전 겨울 동안 타격 폼을 수정해 자신만의 스윙을 만들어 올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다만 바뀐 스윙이 국내 무대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해즐베이커는 12일 일본 오키나와 차탄구장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 연습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첫 선을 보였다. 1회 삼진으로 물러났던 해즐베이커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세 번째 타석인 6회에는 3루수 파울 플레이로 처리 돼 아직까지 첫 안타는 신고하지 못한 상태다.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

TIGERS KIA 스프링캠프 이모저모

“장거리도 1등 할 수 있었는데”

호랑이 군단에서 총알 사나이 최원준의 무늬이다. 최원준은 지난 11일 진행된 4.4km 달리기 훈련에서 1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다. 사실 최원준은 KIA에서 가장 발이 빠른 선수로 통한다.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열린 50m 달리기에서 5.93초를 기록, 팀 내 1등을 차지하며 그의 빠른 발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진행된 4.4km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1등으로 끝나는 데 실패했다. 최원준은 “사실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달리기는 이미 시작돼 있었다.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1등은 무리였다”면서 “1등으로 들어온 신인 오정환이 빠르긴 빠르더라”고 말했다.

오늘 야쿠르트와 2차전

KIA 타이거즈가 설욕에 나선다. KIA는 14일 우라소에 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 2차전을 벌인다. 앞서 치러진 1차전에서는 선취득점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경기가 뒤집혀 3-5로 졌다. 첫 경기 패배 이후 진행된 12일 주니치 드래곤스와 경기에서도 3-8로 패배하는 바람에 승리가 고파오는 KIA다.

승배보다 선수개인 기량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 연습경기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KIA의 일본 팀과의 경기는 5차례 남아 있다. 16일 구사카와 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경기를 치른 뒤 18일 코자 신진 구장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20일 셀러구장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26일 기노안 구장에서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와 맞붙는다.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



지난 12일 차탄 구장에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훈련 중이다. 최형우(왼쪽)와 그를 바라보는 김기태 감독의 모습.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

전남장애인선수단 선전... 첫날 종합 5위

광주선수단, 빙상 김진영 첫 금메달·바이애슬론 김세정 은메달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전남선수단이 대회 첫 날인 13일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휠체어컬링이 강호 인천과 대구를 순차적으로 꺾으면서 5승 2패로 8강을 넘어 4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계 종목의 효자 선수인 빙상 유승현 선수가 500mIDD(지적 성인부)에 출전해 지난 대회에 놓쳤던 금메달을 다시 획득했다. 바이애슬론 김민영 선수는 4.5km 부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알파인스키 여자 시카 최길라(시카가이드 고운소리) 선수가 회전 부문에서 동메달을 땀다. 특히 알파인스키는 남녀 통틀어 동계 출

전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기록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전남장애인체육회의 전력이 입증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첫 날 금1, 은1, 동1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종목이 선전하면서 당초 목표 10위보다 초과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광주장애인선수단도 빙상 김진영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빙상 김진영(지적장애)은 여자 일반부 500m에 출전해 55.7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윤좌현(지적장애)은 남자 일반부 5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냈다. 바이애슬론에 출전한 김세정 선수는 여자 자좌식부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알파인 최길라(오른쪽) 선수와 시카가이드 고운소리

양기생 기자 gingullove@srb.co.kr

여자컬링 ‘팀킴’ 패배

동계체전 경기도청에 석패 준우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팀킴’이 우여곡절 끝에 부기한 첫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다. 경북체육회(김경애·김초희·김진영·김영미)는 13일 오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경기도청(김은자·엄민지·김수지·설예은)에 6-7로 석패했다. 경기도청은 2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4엔드까지 1-4로 끌려가던 경북체육회는 5, 6, 7엔드에 1점씩을 만회해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도청이 8엔드에 먼저 2점을 올리며 리드를 잡았지만, 경북체육회는 9엔드에 2점을 추가하며 6-6으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마지막 10엔드에서 경기도청이 1점을 따내 승리를 가져갔다.

광주FC, 베테랑DF 정다환 영입

프로 통산 206경기 기록... 경남·제주 등서 맹활약
스피드·폭넓은 움직임 장점... 측면 공수 소화 가능

프로축구 광주FC가 베테랑 수비수 정다환을 영입했다. 광주는 13일 지난 시즌 제주UTD서 활약한 수비수 정다환(31)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 11년차를 맞는 정다환(181cm·78kg)은 투지 넘치는 대인플레이와 스피드와 폭넓은 움직임이 장점인 우측면 수비수이다. 2009년 FC서울에서 데뷔해 경남과 제주 등을 거치며 통산 206경기 7골 8도움 기록했다. 특히 원포워드와 윙백 모두 소화 가능하며, 탁월한 센스와 영리한 플레이, 넓은 시야는 현역시절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진섭 감독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섭 감독은 “정다환이 갖춘 수비력과



기동력, 영리함은 현대축구에서 풀백이 가져야할 중요한 요건”이라며 “특히 그라운드에서의 투지와 헌신도가 높아 팀에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다환은 “어려서 박진섭 감독님의 플레이를 보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직접 지도를 받게 됐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는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중요시 한다. 팀컬러에 맞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